



일본의 문화

22045725 레비엠토이

목차(I)

1. 문학
2. 음악
3. 연극·영화
4. 건축과 공예
5. 회화
6. 체육
7. 요리
8. 가구나
9. 마쓰리
10. 단오

목차(II)

1. 사자무
2. 불단
3. 불꽃놀이
4. 성인식
5. 모노노아와레
6. 히나마츠리
7. 시치고산
8. 세쓰분
9. ,칠석

1, 문학



- 일본 문학의 기원은 구전 문학(口傳文學)에서 비롯하여 8세기 초에 최초의 기록 문학 형태를 갖추었다.왕실에서 직접 주도하여 712년 신화와 전설에 관한 작품집인 고지키가, 720년에는 역사서인 니혼쇼키가 완성되었다. 또 759년 경에는 일본 최고(最古)의 시집으로 4,500편의 시가 수록된 만요슈가 등장하여 이 시기에 단가(短歌) 형태의 시가 문학이 나타났음을 입증하고 있다.그 후 헤이안 시대의 귀족 문화에서 문학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궁중의 여관(女官)으로, 이 시기에 세이 쇼나곤, 무라사키 시키부 등의 여성 시인이 활발하게 활동한다.센고쿠 시대와 에도 시대를 거쳐서 17세기에는 마츠오 바쇼가 17자의 단문 시 형식인 하이쿠를 만들기도 하였다.

근현대 일본 문학은 다양한 사조의 등장으로 문학 작품의 다양성이 강해져, 일본 내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대표적인 작가로 나쓰메 소세키, 가와바타 야스나리, 오에 겐자부로 등이 있었다

고사기

西國西國故國其國主神人女子奉代主神如白雲有
 可白子乎於是白之云我子有建御名神建御名神者其神
 向其建御名神引我子來而求言誰來我國而息此
 物言無故為力竟故我先欲取其御手故今取其御手者即成
 志求也取成御可故今懼而退是亦故取其建御名神手其神
 而取者如取名善極也而後離者即出故進往而到村野國所
 羽倫特時建御名神向雲霧蔽我除建御名神行他處云是
 我與天國主神命不違八重奉代主神之言建御名神國名是

일본서기

祖日嗣使主之女宮主宅媛生菟道稚郎子
 皇子天田皇女雌鳥皇女次妃宅媛之弟小
 碓小碓此云媛生菟道稚郎子皇女次妃河津
 仲彥女弟媛生稚野毛二湊皇子湊此云次妃
 櫻井田部連男祖之妹弟媛生年終別皇子
 次妃日向皇長媛生大葉枝皇子小葉枝皇
 子凡是天皇男女并廿王也根鳥皇子是
 大田君之始祖也大山守皇子是土形君藤原
 君凡二族之始祖也去來真稚皇子是深河
 別之始祖也
 三年冬十月辛未朔癸酉東蝦夷悉朝貢
 即後蝦夷而作麻坂道十一月蒙乙海人訕
 叱之不從命訕叱此云則遣阿曇連祖大瀨
 宿祢平其訕叱因為海人之宰故俗人諺
 曰佐麼阿摩者其是緣也是歲百濟辰
 斯王立之失禮於貴國天皇故遣紀角宿祢
 村田美代宿祢石川宿祢木菟宿祢噴讓其
 无礼狀由是百濟國叛辰斯王以謝之紀角
 宿祢等便立阿菟為王而歸
 五年秋八月庚寅朔壬寅令諸國定海人及山
 守部冬十月科伊豆國令造船長十丈船既
 成之試浮于海便輕泛疾行如馳故名其船
 曰枯野由船輕故名枯野是義造
 鳥若謂輕野後人訛勝
 六年春二月天皇幸近江國至菟道野上而歌

2, 음악



- 일본에서는 전통 음악에서부터 서양의 고전 음악, 팝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다. CD는 연간 4억 5천여 장, 테이프는 2,300만여 본이 제작되며, 야마하와 같은 악기 제조 업체들이 발전하여 잘 알려져 있다. 일본의 악기사 또한 다른 문화 분야의 역사처럼 오래되었는데, 중국의 위지에는 5~6세기에 한국으로부터 삼국시대 음악이 소개된 기록이 남아있다. 5~9세기에 걸쳐서 당나라의 당악과 불교 음악 등이 유입되기도 하였다. 사무라이들의 등장으로 궁정 귀족들이 몰락한 이후 에도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기간에는 이전의 전통적 음악들이 쇠퇴하고서 전통 예능 부흥 운동이 일어나 다시 왕성해지고 있다.

샤미센



비와



3,연극·영화



- 오랜 역사를 지닌 무악(舞樂)을 비롯하여 **노**, **교겐**, 인형극, **가부키**, 각종 민속예능 등 이른바 전통 예능과 신파. **오페라**. 발레. 대중연극 등의 현대 연극 등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 일본 연극은 오랜 역사 속에서 주변의 여러 나라로 영향을 받으며 발달하여 온. 무로마치 시대에 **간아미**와 **제아미** 부자에 의해 **노**가 발전하였으며, 고전이다. 메이지 시대 이후에는 서양식 연극이 도입되었으며, 이외에 라쿠고나 고단과 같은 대중을 대상으로 한 만담(漫談) 문화도 유명하다

오페라



- 한편 영화는 1897년에 최초로 그러한 개념이 들어와 1899년 첫 실사영화가 제작되었다. 오늘날의 일본 영화는 제작 편수에서는 미국과 인도의 뒤를 잇고 있으며 1950년대 이후 대외적으로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초기의 극영화는 신파극 계통의 현대극과 가부키를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 시대극으로 양분화되었으며, 영화를 만드는 기술 또한 원시적이었다. 그러다 다이쇼 시대 이후 닛카쓰와 쇼치쿠 등 전문 영화사들이 설립되어 일본에서 영화가 본격적으로 산업화되었다. 태평양 전쟁 도중에는 군부에 의해 정치적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던 영화는 패전 이후 [[구로사와 1951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일본 영화 중 최초로 수상한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지만 텔레비전 방송의 등장에 따라 영화 산업 자체가 한 때 쇠퇴하기도 하였다

가부키자



노 (연극)



4, 건축과 공예



- 생활 예술 중 하나인 꽃꽂이(일본어: 生け花 이케바나[*]) 또는 화도(華道)는 16세기 경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전통적인 꽃꽂이는 자연적인 상태의 소재와 모습을 중시하고 이념적인 의미를 부여해 왔지만, 현대에는 무생물인 철 조각이나 석고, 유리 등과 같은 인위적인 것들을 소재로 활용하는 전위적인 형태도 등장했다. 현대에 이르러서 꽃꽂이는 실내 장식의 중요한 요소이자 생활 취미로서 대중에게 보급되고, 서양식으로 변형을 준 플라워 디자인(Flower Design)도 유행하고 있다

말차



다도(일본어: 茶道, さどう 사도^[1])는 일정한 작법에 따라 주객(主客)이 공감을 나누면서 차를 마시는 것으로, 원류는 중국이었지만 일본이 계승하여 예술적으로 바꾸었다고 평가받고 있다.^{[9]:124} 일본의 다도는 16세기 후반 센노 리큐가 완성하였다. 다도에서는 주로 말차(抹茶)라는 가루 형태로 정제된 찻잎을 다기에 넣어 뜨거운 물을 붓고, 대나무 막대로 저어서 거품을 낸 차를 마신다.^{[9]:124} 다도의 예법에는 사무라이의 예법이나 노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의 전통적인 예의 작법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현대 일본에서는 신부 수업의 한 과정으로서 다도가 행해진다.

5, 회화

도슈사이
샤라쿠의 우키
요에



- 현대 일본의 회화는 서양화와 전통 회화로 구분된다. 보통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유화, 수채화 같은 서양화를 많이 교육하고, 전통화는 감상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 때문에 전통화는 가정에서도 장식화 수준으로 다루어지며, 그러한 장식을 목적으로 전통화를 수집하는 애호가들도 많다

우키요에



- 일본의 전통 회화는 불교의 전래와 더불어, 부처의 그림과 같이 불교와 관련된 그림을 그리는 불화(佛畵)로부터 시작되었다가 10세기부터는 일본 열도의 풍경이나 풍속을 묘사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야마토에(大和繪)라고 불렀다. 한편 전통 회화의 다른 종류인 수묵화는 중국에서 들어와 15세기 경에는 일본 회화의 일부로서 독자적으로 발달하였으며, 묵의 진하기를 활용하고 주로 암시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에도 시대의 회화로 오늘날에도 폭넓게 감상되고 있고 해외에도 널리 알려진 우키요에(浮世繪)이다. 민화의 한 양식으로 직접 그리는 육필화 형태로도 제작되었지만 특히 판화(版畵) 형태로 널리 보급되었다. 18세기 중엽에 스즈키 하루노부가 창시한 다색쇄판화로 우키요에는 더욱 번성하였으며, 19세기에는 가쓰시카 호쿠사이, 안도 히로시게 등이 등장하여 우키요에의 최전성기를 맞아 우키요에의 화법이 서양으로 알려쳐 고흐 등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6,체육



- 인기 종목으로 야구·축구·럭비·배구·농구·검도·가라테 등이 있으며, 겨울철에는 스키·스케이트·아이스 하키가 성행하고 있다.그 중 야구, 축구 등에는 국가대표 팀이나 J-리그 같은 프로 경기들도 활성화되어 있으며텔레비전 등의 수단을 통해 종종 널리 중계되기도 한다.

스모와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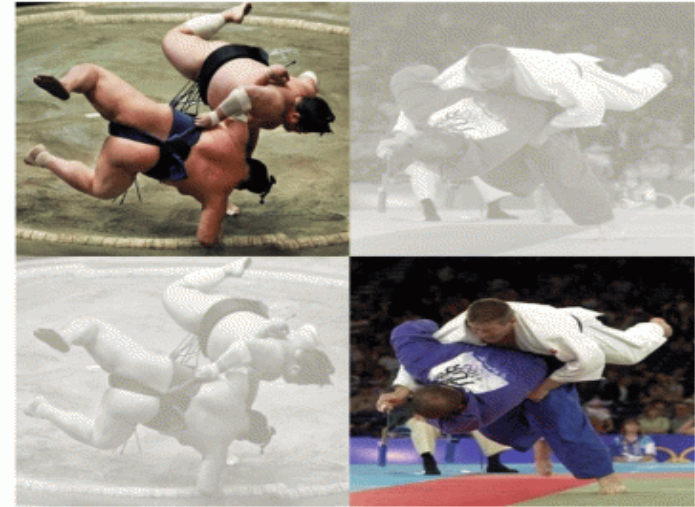
- 일본의 전통 씨름인 스모(일본어: 相撲, すもう)는 고대 **일본 신화** 시대부터 전해지는 운동으로 일본 신화에서는 신들끼리 이러한 형태의 씨름으로 승부를 겨루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러한 스모는 고대 이후 단순히 체육으로서만이 아니라 농업 생활의 길흉(吉凶)을 점치고 신과 소통을 한다는 종교적인 목적에서 치러졌다. 그러다가 6세기 이후에는 종교적인 행사에서 유희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 활동으로 변모하였다.
- 스모는 직경 4.55m 정도의 씨름판 위에서 리키시(力士) 두 사람이 힘을 겨루는 것으로, 양쪽 리키시 모두 훈도시와 마와시만을 착용하고 심판의 지시에 따라 서로 밀고 부딪치며 두 엉켜서 싸운다. 승부의 결정 방식은 한국식 씨름과 유사하지만, 한국식 씨름과는 달리 씨름판 밖으로 밀어내는 것도 허용되며 단판승으로 정한다



- 프로 경기는 일본스모협회라는 공인 씨름 단체에서 주최하여 1년에 6번, 매달 15일에 도쿄에서 세 번,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에서 한 번씩 개최한다. 개최달 15일부터 약 15일 동안 매일 상대를 바꾸어 싸워서 승리한 수에 따라 우승자를 정하며 승률에 따라서 지위의 위아래를 가려낸다. 이처럼 스모는 일본의 국기 중 하나로서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중계를 통해 전 국민이 즐기고 있다. 이러한 프로 경기 이외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마추어 학생 대회도 각지에서 치러진다.[6]:260
- 고대 일본에서 전해져 온 무술 중 하나인 유도(일본어: 柔道, じゅうどう 주도[*])는 19세기 이후 가노 진고로를 중심으로 1882년 강도관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연구와 지도가 이루어졌다.[6]:260 여기서 전통적인 고대 무술이 융합된 유술, 즉 유도의 근대화 발전의 기초가 닦아졌다.[6]:260 20세기 이후에는 남자 중학교 연령 이상의 체육 교육에 본격적으로 보급되어 유도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6]:260 이러한 유도는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 전파되어 있다



스모와 유도



검도



- 긴 칼이나 죽도를 이용하는 기술인 검도(일본어: 剣道, けんどう 겐도[*])는 사무라이들이 등장한 7~8세기 경부터 등장하여 16세기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여 여러 유파가 등장하였다. 17세기 이후에는 유교와 선종의 영향을 받아 도덕적인 수련을 추구하게 되었다. 실제 검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통 안전을 위해서 죽도를 사용하며, 18세기 이후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구(防具)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 1970년대 국제검도연맹이 창설되는 등 검도 또한 다른 일본의 전통 무술들처럼 국제적으로 보급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일제 강점기 이후 일본에 의해 적극적으로 보급되어, 1952년 대한검도회가 최초로 세워진 이후에 여러 유파가 등장, 태권도나 아이키도 등과 더불어 대중에게 보급되어 있다

검도(劍道)란?

호구를 착용한 두 선수가 죽도로 상대의 머리와 손목, 허리, 목을 가격하여 승패를 겨루는 경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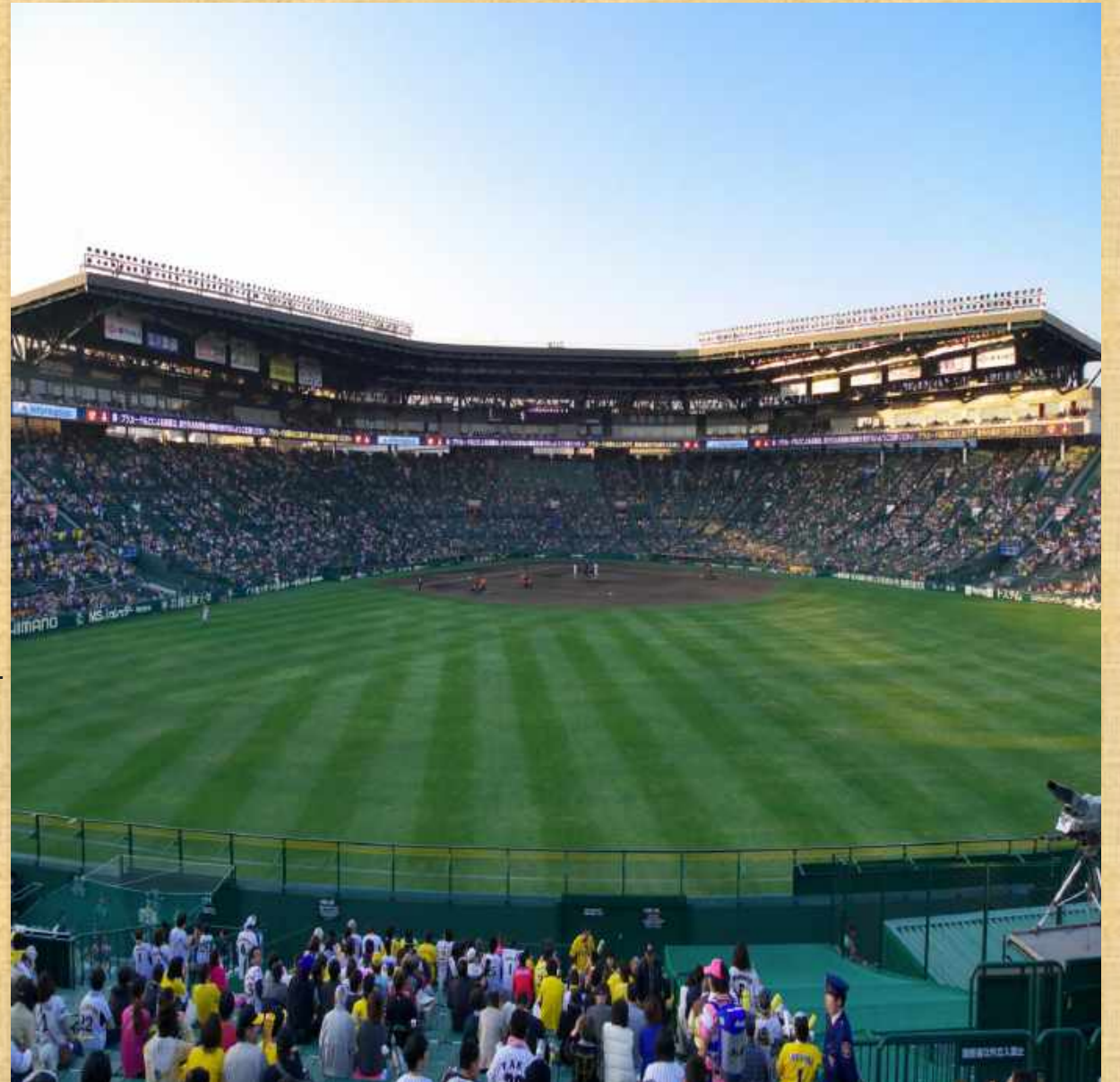
야구



- 일본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야구가 번성한 나라로 평가받으며 '야구'(野球)라는 명칭 또한 19세기에 야구가 최초로 일본에 전래되었을 때, 일본에서 번역을 통해 만들어진 명칭이다. 1873년에 미국으로부터 최초로 일본에 전래된 야구는 근대기에는 학교 야구를 중심으로 보급되었으며, 1934년 이후에는 프로 야구 대회가 등장하여 크게 발달하였다.
- 학교 야구는 전국의 대학교 야구팀이 치르는 경기와 고등학교 야구팀이 치르는 경기가 있는데, 대학교 리그는 인기가 좋지 못한 반면 매년 봄과 여름에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의 한신 고시엔 구장에 서 열리는 전국 고등학교 야구 선수권 대회는 많은 팬들로부터 인기를 모으며 예선 참가팀까지 합쳐 총 4,000여개의 학교가 참가하는 대규모 경기이다

니시노미야시

- 한편 프로 야구는 센트럴 리그와 퍼시픽 리그에서 각각 6팀, 총 1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의 야구 리그는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780경기를 치르고 양대 리그 우승 팀 간에 일본 프로 야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결승 대회인 일본 시리즈를 개최한다. 1998년 기준 약 2,170만명의 관중을 동원하였다.^{[6]:262}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1주일에 5일 내지는 6일 정도의 저녁 시간대를 야구 중계로 편성할 정도로 일본 프로 야구의 인기는 상당하다.



7,요리



현재에 전해지는 전통 요리가 발달한 것은 에도 시대로, 전통 요리로는 연회용 정찬인 가이세키 요리와 혼젠 요리 등이 있다. 가이세키 요리의 경우 우선 국, 생선회, 찜, 구이 등이 먼저 나온 후,마지막에 밥과 쓰케모노가 나오는데 식단에 따라 5첩, 7첩, 11첩 반상이 된다. 또 한국이나 중국처럼 젓가락을 사용하지만 젓가락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짧기 때문에 밥이나 국 같은 경우에는 입에 대고 먹거나 마신다

쓰케모노



현대 요리로는 여러 인스턴트 식품이 일본에서 발명되었는데, 1958년 닛신(Nissin)이 최초로 인스턴트 치킨 라면을 발매한 이래 1971년에는 컵라면이 등장하여 대한민국에까지 알려졌다. 인스턴트 식품의 인기가 폭발한 이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는 냉동 식품이 인기를 끌었고, 제2차 세계 대전 이전부터 존재했던 캔(Can)을 플라스틱 포장으로 바꾼 레토르트 식품도 발명되었다. 이처럼 현대의 일본 요리는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간이 식품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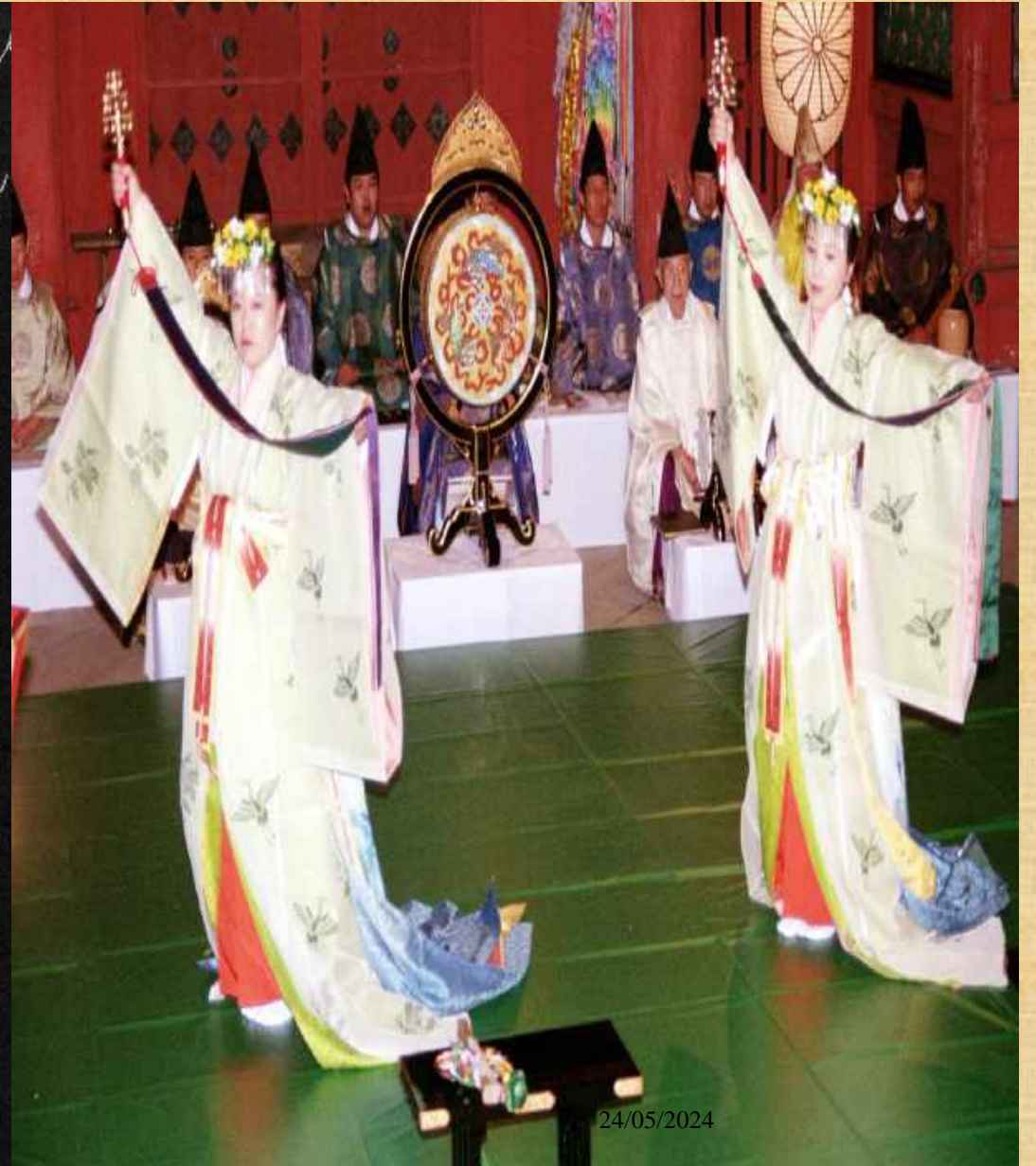
8,가구라 마 츠리



- 일본의 신사(神社)의 제례 등에서 주로 향연되며 드물게는 불교 사찰에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헤이안(平安) 중기에 그 양식이 완성된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 약 90수의 가구라우타(神樂歌)가 존재하고 있다. 가구라는 신사에 「가구라도노(神樂殿)」라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 그곳에서 향연되는 경우가 많다.
- 일반적으로 「가구라」의 어원은 「신(神)이 머무르는 곳」 또는 「초혼(招魂)·진혼(鎮魂)을 행하는 곳」을 의미하는 「가무쿠라(神座)」에서 유래했으며, 가미쿠라로도 불리는 이곳은 신들의 강림처이자 무당이 사람들의 부정함을 없애고 신과 사람을 매개하며 신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으로서 이곳에서 벌어지는 춤과 노래가 오늘날의 가구라의 원형이 된 것으로 보인다. 고사기(古事記)·일본서기(日本書紀)에 등장하는, 아마노이와토 전설에서 동굴에 숨어버린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를 바깥으로 다시 불러내기 위해 신들이 모여 춤추고 노래하는 와중에 동굴 앞에서 여신 아메노우즈메(アメノウズメ)가 신들 린 상태에서 추었다는 춤이 일본 가구라의 기원으로 여겨지며, 이후 아마노우즈메 여신의 자손을 칭하는 사루메노기미(猿女君)가 일본 궁중에서 진혼 의식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볼 때 본래의 가구라는 주로 초혼이나 진혼 의식을 수반한 것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가구라는 궁중의 미카쿠라(御神樂)와, 민간의 사토가쿠라(里神樂)로 나뉘며, 또한 몇몇 신사에서는 최근에 만들어진 가구라도 상연되고 있다.



KAGURA DANCE



9, 마츠리



- 일본어로 축제를 뜻하는 단어 '제사를 지낸다'는 뜻인 동사 마츠루(祭る)가 명사화하여 의미가 넓어진 것이다. 원래는 말 그대로 '제사'를 뜻하며 실제로 전통적인 마츠리의 상당수가 일본 신토의 신사와 관련이 있다.
- 어원에 대해 일부 일본 학계에서는 '(신을) 맞이한다'는 뜻의 한국어 '맞으리'에서 유래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 신사에서든 언제나 간단한 제사를 올린다. 신직(신토의 교직자)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음식물 약간을 신찬(神饌)으로 삼아 올리는데, 이 또한 소규모이기는 하나 분명히 제사, 즉 마츠리이다.
- 이렇게 매일 조석으로 올리는 제사 말고도 한 달에 한 번 올리는 제사, 1년마다 정해진 특별한 날에 올리는 제사, 몇 년에 한 번 거창하게 올리는 제사가 따로 있다. 당연히 자주 행하는 제사일수록 간략하고, 드물게 행하는 제사일수록 거창하다.



- 이 중 1년마다 정해진 날, 또는 몇 년에 한 번씩 거행하는 거창한 제사는 신사 관계자들만이 아니라 주변의 신자들에게 돈과 관련 물품을 받아서 행하는 큰 행사가 된다. 이런 행사는 종교적인 제사이면서 모두가 함께 즐기는 거창한 페스티벌, 축제(祝祭)가 된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말 '축제'에서도 제사 제(祭)자가 들어간다.
- 여기에서 의미가 넓어져서 종교적인 성격이 전혀 없는 큰 페스티벌도 우리말로 '축제', 일본어로는 '마츠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인 만큼 행사장 주변에서 일본식 포장마차인 야타이(屋台)들이 각종 먹을거리와 기념품을 팔기도 한다.



10, 단오



- 일본의 단오(일본어: 端午 단고[*])에는 남자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다양한 행사를 열린다. 그것을 단고노셋쿠(端午の節句)라고도 한다.
- 단오에는 고가쓰닌교라는 무사 인형을 집에 장식한다. 그리고 용이 하늘로 승천하여 잉어가 황하를 거슬러 올라가 용이 된다는 중국의 전설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부터 세우기 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시와모치(柏餅)라는 떡을 먹는 풍습이 있다. 또한, 남자 아기를 가진 가정에게 첫 명절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성대하게 경축하는 경우도 많다.

목차(II)

1. 사자무
2. 불단
3. 불꽃놀이
4. 성인식
5. 모노노아와레
6. 히나마츠리
7. 시치고산
8. 세쓰분
9. 칠석

1,사자무

- 일본에도 전해져 있습니다.
- 이 전통무용은 사람이 사자탈과 천을 덮어쓰고 한 마리의 사자가 되어 타악기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시아 곳곳에 다양한 종류의 사자무가 있듯이, 일본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사자무의 형식이 다릅니다.
- 타카마츠에는 사자무 팀이 다수 활동하고 있으며, 여러 행사에 사자무를 공연하고 있습니다.





2, 불단

- 법당 정면에 불상을 모시기 위해 만든 제단으로, 불교에서 제석천이 살고 있다는 수미산의 형상을 닮아 수미단(須彌壇)이라고도 한다. 이는 석가모니가 그의 어머니 마야부인을 위하여 설법한 곳이 수미산 정상이었다는 설화로부터 기인한다.
- 나무나 금석, 돌로써 만들며, 일반적으로 수미단은 3단 형식으로 만들어지며, 그 위에 다시 1~2단의 수미좌를 만들어 그 위에 불상을 봉안한다. 가장 아래의 단에는 예불과 의식에 쓰이는 향로, 촛대, 화병 등이 놓인다. 불상을 모시는 만큼 그 치장을 화려하게 한다.
- 일본에서 부쓰단(仏壇ぶつだん)이라고 하는 불단은 한국의 사찰에 있는 불단과는 그 모양이 매우 다르다. 구글에 불단을 검색하면 대부분 일본의 부쓰단이 나온다. 한국의 불단은 그래서 따로 수미단이라 일컬어 구분 짓기도 한다.





3, 불꽃놀이



- 화약과 금속을 이용하는 놀이.
- 폭죽 등의 화약에 여러 금속 화합물들을 첨가하여形形色색을 불꽃(불꽃 반응 참고.)을 나타내게 하는 놀이. 화려하고 큰 소리가 난다는 점에서 멀리서 소식을 전하거나 축제 같은 이벤트 등의 용도로 볼 수 있다.
- 초기에는 횃불을 이용한 방식이었으며, 화약이 개발되고 나서부터는 이쪽으로 하는 것이 불꽃놀이가 되었다. 이것에 사용되는 화약을 만들기 위한 장인도 존재했으며, 그 발전사를 보면 거의 화학의 발전 과정과도 일치한다. 발사 방식과 제작방식, 야간이냐 주간이냐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며 각각마다 여러 화학적인 원리가 심오하게 들어가 있다.



4, 성인식



- 성인식은 1월의 제 2월요일에 열리는 성인이 된 사람을 축복하는 이벤트입니다.
- 전년도 4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20세를 맞이하는 사람들을 각 일본의 관공서 등이 주체가되어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큰 회장 등 지역의 새로 성인이 된 사람들을 초청하여 기념품을 받거나 시장에서의 축하를 받기도합니다. 새로 성인이 된 사람의 대표자가 성인을 맞이한 것에 대한 맹세의 말을 언급 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의 내용은 각 구청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는 1월이 아니라 여름 방학 등 할 곳 도 있습니다.
- 반드시 참가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른이 된 이정표로 참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5, 모노노아와레



- 모노노 아와레(일본어: 物ものの哀あわれ)란 일본 헤이안 시대의 왕조문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학적 미적 개념, 미의식의 하나이다. 직역 또는 의역하여 사물의 슬픔, 비애의 정등의 의미를 갖는다. 보고 듣고 만지는 사물에 의해 촉발되는 정서와 애수, 일상과 유리된 사물 및 사상과 접했을 때, 마음의 깊은 곳에서 흘러 나오는 적막하고 쓸쓸하면서 어딘지 모르게 슬픈 감정등을 말한다. 에도 시대의 대표적인 국학자인 모토오리 노리나가 가 겐지 모노가타리를 언급하면서 처음으로 주창하여 겐지 이야기를 모노노아와레의 정점에 있는 작품으로 평가하였다.
- 에도 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에 의해 유교의 권선징악이라는 개념에 의해 헤이안 시대의 문학을 평가하는 시기가 있었다. 모노노아와레는 그러한 유교적 기준을 부정하고 일본고유의 미의식의 재발견이라는 목적하에 제시된 개념이었다.



6, 히나마츠리



- 히나마츠리(雛ひな祭り)는 일본의 전통적 축제일로, 3월 3일이다.



7,시치고산



- 시치고산(七五三, しちごさん)은 3, 5세가 된 남자아이와 3, 7세가 된 여자아이를 그 해 11월 15일 가까운 신사나 절에 데리고 가 그때까지 무사히 성장했음을 축하하는 일본의 전통 행사이다. 한국으로 치면 대한민국의 100일 또는 돌잔치인 셈이다.
- 시치는 7, 고는 5, 산은 3으로 직역하면 753이다. 2023년에는 남자는 2018년과 2020년생이, 여자는 2016년과 2020년생이 시치고산을 맞는다. 즉, 2022년부터는 레이와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줄줄이 시치고산을 맞게 되는 셈이다. 에도 시대 출생자들이 마지막으로 시치고산을 맞은 해는 남자는 1873년, 여자는 1875년이고 메이지 시대 출생자들이 마지막으로 시치고산을 맞은 해는 남자는 1917년, 여자는 1919년, 다이쇼 시대 출생자들이 마지막으로 시치고산을 맞은 해는 남자는 1931년, 여자는 1933년이며 쇼와 시대 출생자들이 마지막으로 시치고산을 맞은 해는 남자는 1994년, 여자는 1996년이고, 20세기 출생자들이 마지막으로 시치고산을 맞은 해는 남자는 2005년, 여자는 2007년, 헤이세이 시대 출생자들이 마지막으로 시치고산을 맞은 해는 남자는 2024년, 여자는 2026년이다.



8, 세쓰분

いただきます~! 잘 먹겠습니다~! 2월

에호마키 (惠方巻)



- 일본의 명절. 원래는 옛날에 4계절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여긴 사립(四立: 입춘·입하·입추·입동)의 전날을 가리키지만, 본문에서는 일본에서 명절로 간주되는 입춘 전날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 일본에서는 입춘 전날만을 명절로 쇠나. 해에 따라 다르나 대개 2월 3일 전후이다. 공휴일은 아니다. 이 날 밤에는 가정에서 ‘마메마키(豆まき)’라고 하여 재액(災厄)을 가져오는 요괴인 오니를 쫓아내기 위해 오니가 싫어하는 콩을 뿌리는 풍속이 있다.[1] 콩을 뿌리면서 ‘오니는 물러가고 복은 들어오라’(鬼は外、福は内)라는 말을 외치며 집안에 뿌린 콩을 자신의 나이만큼 주워 먹는 행사를 한다.[2] 오니가 밤새 뿌려진 콩을 하나하나 세느라고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날이 밝으면 달아난다고도 하며 두부나 낫토처럼 콩으로 만든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 썰지 않은 굵은 김밥 형태의 에호마키(惠方巻)를 그 해의 길한 방향을 보며 먹는 풍속이 있지만 이는 현대에 확산된 풍속으로, 다 이쇼 시대까지만 해도 오사카의 일부 지역에서 신코마키(新香巻)를 먹던 것이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지역특산물 발전을 위해 간사이 지역에 보급되었고 확산된 것은 헤이세이 시대, 특히 전국적으로 퍼진 건 21세기에 와서다.[3] 2002년까지만 해도 일본인들의 절반이 에호마키를 먹는 풍속을 몰랐지만 불과 4년 후인 2006년에는 에호마키를 만드는 회사들의 마케팅으로 전국에 유명해져서 일본인의 90% 이상이 알게 되었다. 민간풍습답게 정확한 기원에 대한 것은 추측이 많고 신빙성이 없어서 찾기 힘들다.
- 오니 가면이나 한냐 가면을 쓰고 놀기도 한다.



9, 칠석



- 명절 중 하나로, 음력 7월 7일을 일컫는다. 양력으로는 대부분 8월에 온다.
- 양력을 기준으로 2022년은 8월 4일, 2023년은 8월 22일, 2024년은 8월 10일.
- 가끔씩 광복절(8월 15일), 입추(8월 7일~8일[1]) 또는 말복과도 겹친다.
- 다른 이름으로 칠성날(七星-), 꿈비기날, 농현, 풋구(경상북도 북부), 호미씻이(경상북도 문경), 꿈비기(구미 선산지역), 호미걸이(전라북도 군산) 등의 여러 이름으로 불려진다.



- 칠석(七夕)의 유래는 중국의 『제해기(齊諧記)』에 처음 나타난다. 주(周)나라에서 한대(漢代)에 걸쳐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다.
- 견우와 직녀 설화를 바탕으로 헤어져서 못 만나던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까마귀와 까치들이 만들어준 오작교 위에서 만나보는 날이다. 칠석에는 비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설화에 의하면 견우와 직녀가 반가워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하고, 칠석날 천후에 내리는 비는 견우와 직녀가 서로 타고 갈 수레를 물로 씻어서 준비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정확한 이유는 불명.
- 또한 칠석에는 까치와 까마귀가 오작교를 만들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칠석이 지나면 까치의 머리털이 벗겨져 있는데 오작교를 놓느라고 돌을 머리에 이었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견우와 직녀가 까치 머리를 밟고 지나갔기 때문이라고도 한다.[2]
- 우리나라도 일찍이 삼국시대에 이 설화와 풍속이 있었던 듯하다. 고구려 고분 벽화 가운데 평안남도 남포시 강서구역에 있는 덕흥리 고분 벽화에 견우와 직녀 설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 생동감 있게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기록에는 고려 공민왕이 왕후와 더불어 칠석날 궁궐에서 견우성과 직녀성에 제사하고 백관들에게 녹을 주었다고 하였고, 조선조에 와서는 궁중 밖에서 잔치를 베풀고 성균관 유생들에게 절일제(節日製)의 과거를 실시한 기록이 있다. 궁중 밖의 민간에서도 칠석의 풍속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모습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등의 문헌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